

투데이 칼럼

“부안에 마실 오셔서 오복 가득 받아주세요”

마실이라는 단어는 어쩔지 구수하면서 농촌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대변하고 서로의 반가움을 마음속으로 내포하며 살짝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함께 소식을 전하는 듯 정겨운 느낌이다.

옛그제 시작한 부안마실축제는 어느덧 장성해 어린 티를 버리고 세찬 비바람에 슬기와 지혜가 녹아나 한국의 10대 축제에 도약하기 위해 멋지게 비상하며 한국의 맛을 뽑내려 한다.

조선 영조 3년 그 유명한 어사 박문수는 부안을 어렴시조(魚鱚失草)가 다 갖춰진 살기 좋은 '생거부안(生居扶安)'이라 평했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산에는 쌀·밭·오디·대봉시, 들에는 쌀·보리·감자·수박·양파·마늘, 바다에는 송어·전어·주꾸미·갑오징어·불매기·꽃게·

해삼 등이 얼마나 풍부하면 '생거부안'이라 말했겠는가?

올해는 부안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600년이 되는 더욱 의미 깊은 해이다.

부안은 '도울 부(扶)'에 '편안할 안(安)'으로 '서로 도와 편안하다'는 정겨운 이름을 가진 고장이다.

정명 600주년과 관련한 행사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살기 좋고 마음 편한 부안으로 부담 없이 마실 오는 것이 어떤가?



송창환

부안군 농정기획팀장

부안군은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부래만복(扶來滿福)'이라는 2016년 부안군 사자성어를 만들어 봄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부래만복 사자성어를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안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례가 있으니 오복이 가득한 부안에 한번 놀러오고 싶지 않은가?

제4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5월 6~8일까지 부안을 일원을 중심으로

로 부안군 전역에서 개최된다.

'오복이와 함께하는 마실 춤 여행'을 슬로건으로 4개 분야 47여개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부안마실축제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부안에 오면 오복이(자복이, 갑복이, 재복이, 흥복이, 종복이)와 함께 만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부안마실축제 상징 캐릭터 '오복이'도 개발됐다.

벌써부터 오복이 캐릭터는 부안군민들은 물론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 명동 등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울 봄 산·들·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각종 먹을 것이 풍부한 부안으로 가족들과 함께 마실 온다면 부안의 오복을 듬뿍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들 올해는 정명 600주년을 맞아 부안에 마실 오셔서 오복을 가득 받아 가시길 바래 본다.

독자제언

테러 예방, 주민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

테러란? 특정목적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로 그 유형으로는 사상적,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인 테러로 구분된다. (출처=군사용어사전 중)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야욕이 겹쳐서 드러나면서 대도시 심장부에 발원전단지 살포하는가 하면 핵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 조짐과 주요 탈북민에 대한 납치 제거를 위한 말 그대로 국지적 테러 전술까지 무분별하게 가동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런 북한의 만행전술에 쉽사리 넘어 가지 않음을 또한 대내외에 천명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더욱 단결된 안보 의식과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주민들과 관련 군부대는 물론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훈련을 실시 전개하고 있다.

순창경찰 역시 경찰서장 주재 전 관리자가 한자리에 모여 對 테러 예방

집중 토론회와 타격대를 비롯 가동경력 100% 동원, 주민들과 인접 군부대, 유관기관과의 사전 시나리오 없는 對 테러 실전 모의 훈련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 시키고 있다.

또한 다중운집장소와 안전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실시간 연계 순찰과 다기능 다목적 활동으로 예방 차원의 효과를 고도화 하고 있다.

현재 전국 경찰관서와 군 부대는 경계강화 비상근무에 연일 긴장된 분위기를 이어 가고 있다.

테러 요인에서부터 우리나라와 대적하려는 국가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이야말로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테러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확보 역시 예방적이고 예측적 움직임이 우선 되어야 하겠다.

우리 생활에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그러한 요소가 인지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반드시 제보해서 경찰 등 관련 기관이 반드시 확인하고 또 살피는 이중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겠다.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112로 연락 주면 된다.

테러 예방, 주민들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

순창경찰 순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독자제언

노인·어린이 야간이나 비오는날 밝은색 옷 입도록

어린이, 노인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 할수 있고, 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수 있다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와 못지않게 어린이, 노약자 스스로의 예방활동도 필요하다 생각하며 여러 가지 예방활동 중 특히 의류색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르신, 그리고 주의력이 부족하여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들

모두 향시 큰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식별이 잘 되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

야간이나 비오는 어두운 날에는 의류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하며 옷과 더불어 신발, 우산, 등도 밝은색상의 것들을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밝은색 옷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하나 이제부터라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밝은색 옷 입기를 적극 권장하자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윤근영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소동 568-80 순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ijmaeil.com

사설

누리과정 예산 해법 찾아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이 또 다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예산 집행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어떻게든 지금이 해법을 찾아야 할 적기이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총선 전만해도 정부와 여당이 칼자루를 쥘 것처럼 발언권이 켜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야권의 발언권이 세지고 있다. 그에 맞추어 전국의 각 시도 교육감들이 인천 허버파크 호텔에서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누리예산 문제가 논의 됐음은 물론이다.

총선 전만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예고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는데 이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야권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누리예산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교육감들의 입장을 대변해 말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예전 그대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이 없는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쪽이다. 그런데 당국에 하는 문제가 있다. 총선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달라질 기미가 전

혀 없어 보인다. 계속 마이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예산 집행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파탄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사실이지 각 시도의 교육청이 재정 적자의 위기로 내몰린다는 현 정부의 고충이 컸다. 중앙 정부가 갑자기 누리 예산을 지방에 떠넘긴 것 때문에 각 시도의 교육청은 그동안 고충이 컸다.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과구는 지방채 발행이었을 터이다. 그러나 지금은 빚더미 때문에 고민거리가 가중되고 있다. 그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언제까지고 의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도교육청의 적자 재정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도교육청이 딱해서만이다 아니다. 보육 2차 대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있을 파행으로 어린이들이 입을 상처가 걱정이다. 그래서 본보가 사설로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내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코앞의 현실로 닥쳐왔다. 도교육청으로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고동 속에서 죽을 맛일 것이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도교육청은 보육재정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전주한옥마을 정체성 정립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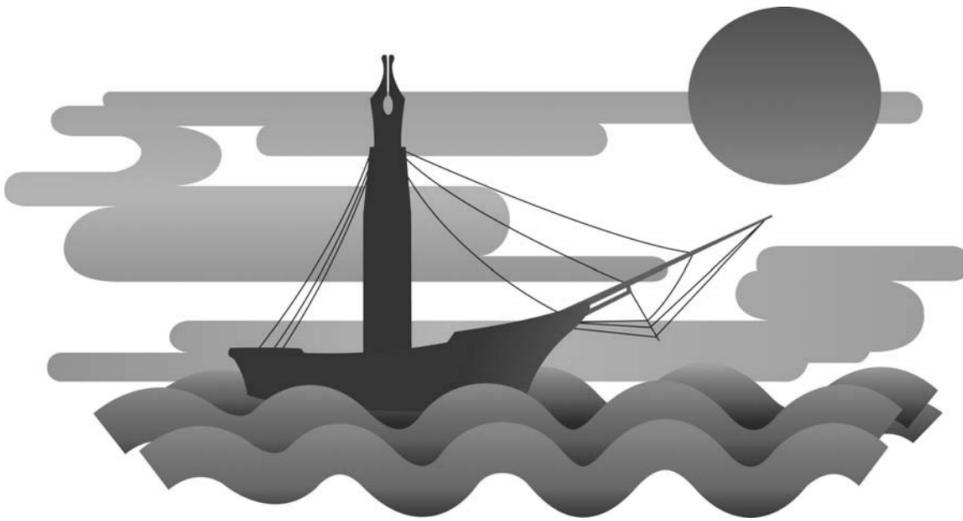
전주 한옥 마을의 정체성을 정립해야겠다. 한옥마을을 조성할 당시의 취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아직도 전주 한옥마을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전주시는 빛이 환하게 비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문제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주시는 관광객 유입 성과에만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이 연간 6백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는데 그에 공감은 하면서도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전주 시민이 65만 아래 쪽을 헤아리고 도민이 2백 만에 못 미치는 것을 생각하면 그처럼 많은 관광객 유입은 지속해도 좋을 법하다.

전주시의 한옥마을 관계자들은 정체성 회복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수익도 좋지만 문화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전

주 한옥마을이 전북 전체의 관광 사업을 계속 선도하고 있기에 하는 당부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관광객들의 일소문과 일소문에 의지하여 그 명성을 계속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전주 한옥 마을에 갔더니 국적 불명의 음식점들이 넘쳐나고 있다가 가격에 비하여 차려진 음식이 형편없다는 식의 평가를 들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평가가 자주 나오면 명성이 퇴색되기 마련이다.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은 정립돼 마땅하다. 그러려면 전통 문화 쪽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본보는 이같은 주문을 여러 번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주문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전주 한옥마을이 전북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지금, 해당 관계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이제 신기원을 이루려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 외지의 관광객들에게 전주 한옥마을은 반드시 찾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그만큼 전주 한옥마을은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